

‘오지영 출전 금지’ 계약서 위반 소지 배구연맹, 문체부 유권해석 받는다

페퍼스-GS칼텍스 트레이드 계약 출전권 박탈은 차별적 행위 가능성 표준계약서 조항 위배 여부 조사 선수 기본적인 권리 침해 막기로



광주 시페퍼스 오지영

광주 시페퍼스와 GS칼텍스가 리베로 오지영의 트레이드 조건으로 합의한 '진정팀 출전금지' 조항이 문체부 훈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2021년 6월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뒤 훈령으로 고시했다.

당시 문체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계약서를 도입했으며 현재 프로배구를 포함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각 리그에 맞는 '표준계약서'로 선수들과 계약 맺고 있다.

우선 페퍼스와 GS칼텍스의 트레이드는 표준계약서 제4조(구단의 의무) 3항과 관련해 위배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엔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 지역, 출신학교, 외모 등의 사유로 선수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다. 외부요인을 배제하고 선수의 부상, 기량 등 객관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경기 출전 기회와 훈련 참여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조항엔 인종 문제 등 일반적인 차별 예시만 적혀

있지만, 구단 이익을 위한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 박탈도 차별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구단은 '오지영의 잔여 시즌 GS칼텍스 출전 금지 조항' 삽입을 요청했고, 페퍼저축은행은 이에 응해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이에 따라 페퍼스는 지난 23일 광주에서 열린 GS칼텍스전에 오지영을 출전시키지 않았다.

이번 트레이드는 계약서 제19조(트레이드) 1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항엔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

계약보다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오지영은 트레이드로 인해 GS칼텍스 경기 출전권 박탈이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남은 시즌을 치르게 됐다. 두 구단이 팬들의 반발에도 시정조치에 미온적이어서 오지영은 향후 GS칼텍스전 2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개인 기록 타이틀 경쟁 등 선수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지영의 트레이드와 관련한 "계약서 내용은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인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문체부 집의를 통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트레이드 시 선수 출전 제한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이번 트레이드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양 구단에 통보한 것"이라며 "향후 모든 구단과 논의해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페퍼스는 개막 후 16연패에 빠졌던 지난달 26일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고 GS칼텍스에서 뛰던 리베로 오지영을 영입했다.

당시 GS칼텍스는 트레이드의 균형이 맞지 않냐며 '오지영의 잔여 시즌 GS칼텍스전 출전 금지 조항' 삽입을 요청했고, 페퍼스는 수용했다.

이런 사실이 지난 23일 오지영이 GS칼텍스전에 불참함으로써 알려지자 배구팬들은 연일 두 구단과 KOVO를 성토했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골프장 이용료 수도권 평균 20만672원 최고 호남 15만2960원·영남 14만6235원 최저

골프 예약 플랫폼 이용현황 분석 예약 주 고객은 40~50대 남성

골프 예약 플랫폼 엑스골프(XGOLF·대표 조성준)가 지난해 골프장 당일 예약 및 골프투어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골프장 예약 주 고객은 40~50대 남성으로 집계됐다.

26일 엑스골프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예약 완료 건을 토대로 2022년 골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일 예약 건의 경우 성별 기준 남성 85.4%, 여성 14.6%로 남성 예약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층은 40대가 40.5%, 50대 39.3%, 60대 9.8% 순이었다.

당일 예약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요일은 일요일로 16.3%를 기록했다.

2일 이상의 골프와 숙박이 패키지로 구성된 골프투어의 경우 예약자 성별은 남성 73.5%로 여

시 높았고, 연령층은 50대가 48.7%로 1위였다. 2일 이상의 골프투어를 떠나는 요일은 역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 18.7%로 비중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 보면 당일 예약의 경우 수도권이 61.8%로 가장 많았고, 충청 21.8%, 강원 10.8% 순이었다.

반면 1박 이상을 하는 지역별 골프투어는 강원도가 33.8%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 23.6%, 호남 16.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평균 액수를 보면 수도권이 20만 672원으로 가장 비쌌고, 제주(17만3749원), 강원도(16만8578원), 충청(15만7425원), 호남(15만2960원), 영남(14만 6235원) 순으로 조사됐다.

엑스골프는 "지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회원들이 만족할 서비스를 기획해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골프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매길로이



리드

PBA vs LIV 양극? 매길로이-리드 감정싸움 격화

매길로이, 리드 안부 인사 무시...리드는 나무 티 집어 던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지원을 받는 LIV 골프에서 뛰는 패트릭 리드(미국)의 감정싸움이 격화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DP 월드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 출전한 매길로이는 연습장에서 리드의 안부 인사를 무시했고, 격분한 리드는 나무 티를 매길로이한테 집어 던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8년 마스터스 챔피언인 리드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등지고 LIV 골프로 떠난 대표적인 선수로, 매길로이는 LIV 골프에 맞서 PGA 투어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는 리드뿐 아니라 이언 풀터(잉글랜드), 헨리크 스텐손(스웨덴), 아드리안 오테기(스페인) 등 LIV 골프 이적 선수들이 여럿 출전한다.

매길로이는 DP 월드투어도 PGA 투어처럼 LIV 골프 이적 선수에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길로이는 26일(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 "리드의 인사를 무시한 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연습에 집중하느라 리드가 다가오는지 몰랐지만, 리드가 와서는 "안녕"이라고 말을 건넸을 때는 "정말 그가 팔 보기 싫었다"고 말했다.

매길로이는 리드가 낸 고소장이 크리스마스이브에 집에 배달됐으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리려는데 누군가 방문해 고소장을 내민다면 기분이 어떨겠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매길로이는 "내가 만약 리드라면 와서 인사를 하거나 약수를 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리드에 대한 감정 역시 숨기지 않았다.

매길로이는 리드가 티를 던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라도 그때 티를 던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드는 앞서 골프다이제스트와 인터뷰에서 "연습장에서 매길로이의 캐디와 약수를 했는데 매길로이는 나를 보고도 모른 채했다. 빠진 어린이가 같은 행동이었다"면서 "티를 던진 게 아니고 장난삼아 가볍게 손가락으로 튕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징계 중인’ 양딩신, LG배 세계바둑 우승 도전

중국 바둑의 강호 양딩신(25) 9단이 징계 기간에 세계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기원은 오는 30일 중국 베이징 중국기원에서 열리는 제27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양딩신과 덩하오(20·이상 중국) 9단이 '대면 대국'으로 맞붙는다고 26일 밝혔다.

1국에 이어 2국은 2월 1일, 3국은 2일 각각 열린다. 메이저 세계기전인 LG배 결승 3번기가 온라인이 아닌 대면 대국으로 진행되는 것은 2020년 2월 제24회 결승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LG배 결승에서 관심을 끄는 기사는 양딩신 9단이다.

중국 랭킹 3위인 양딩신은 지난 12월 자국 동료

기사인 리쉬안하오(28) 9단의 '치팅(cheating)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바둑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치팅은 바둑이나 장기, 체스 등 보드게임에서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파장이 커지자 중국기원은 확실한 물증 없이 의혹을 제기한 양딩신에게 징계를 내렸다.

양딩신은 2022년 12월 26일자로 6개월 출전금지 징계를 당했다.

단, 이미 예정됐던 LG배 결승전과 2월 시작하는 단체전인 중국 갑조리그는 예외로 했다.

LG배 우승 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연합뉴스



수비를 뚫고 혼신의 솜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제28회 국제핸드볼연맹(IHF) 세계남자선수권대회를 28위로 마쳤다. 한국은 25일(현지시간) 폴란드 프워츠크에서 열린 대회 14일째 27위 결정전에서 북마케도니아에 33-36으로 졌다. 사진은 북마케도니아와 경기에서 솜을 시도하는 한국 이현식. /연합뉴스

시프린 월드컵 이틀 연속 우승...통산 84승

남자부 최다우승 86승 돌파 눈앞

미케일라 시프린(28·미국)이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부 최다 우승 기록을 84승으로 늘렸다.

시프린은 2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크론플라츠에서 열린 2022-2023 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 대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 03초 28로

우승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회전을 제패, 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부 최다 우승 신기록인 83승 고지에 올랐던 시프린은 하루 만에 1승을 추가해 여자부 최다승 기록을 84승으로 늘렸다.

종전 여자부 최다 우승 기록은 2019년 은퇴한 린지 본(39·미국)이 세운 82승이었다.

시프린은 이날 2위 랭힐 모반켈(노르웨이)의 2

분 04초 10을 0.82초 차로 앞질러 이번 시즌에만 10승째를 거뒀다.

이날 우승으로 시프린은 남자부 최다 우승 기록인 잉에마르 스텐마르크(은퇴·스웨덴)의 86승도 눈앞에 두게 됐다. 스텐마르크는 1989년에 86승을 거둬 시프린이 이 기록을 넘어서면 34년 만에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시프린은 이번 주 안에 86승을 재출 가능성이 있다. FIS 월드컵은 28일과 29일 체코 대회로 이어가는데 이들 모두 시프린의 주 종목인 회전 경기가 열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교섭
2관	아바타: 물의 길
3관	매간
4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상견니
5관	유령
6관	교섭,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유령, 천룡팔부: 교룡전, 극장판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지구를 위한 싸움
7관	새네키틀 상견니, 영웅, 스위치
8관	새네키틀 상견니,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돌핀보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2023-01-18(수) ~ 2023-01-29(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신년음악회
 일시: 2023-02-03(금) 19:3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613-8245

즐거움
문화산책